

Verdict

시장은 블랙록의 대규모 매집과 미 암호화폐 입법(시장구조법안 상원 농업위 마크업 통과 등) 현실화를 근거로 기관 주도 불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DXY 100 하회와 liquidity_expansion 레짐 하에서 공급 고정 자산인 비트코인에 구조적 손풍이 불고 있으며, 76,000달러에서의 3% 소폭 조정은 건전한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음. 지정학적 위기에 서의 빠른 반등 이력이 '충격 흡수 자산' 내러티브를 강화하며 롱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판단이나 모멘텀 감속 신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결정적으로, 직전 판정(3/16)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2주 내 +5% 이하로 감속'이 충족되지 않았음. 현재 1개월 수익률은 +8.5%로, 직전 +15.13%에서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5%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롱 뷰 유지가 기본값임. 다만, 1개월 수익률이 +15.13%→+8.5%로 약 44% 감속한 점은 모멘텀 피크아웃의 초기 징후로, 가설 B가 지적하는 '모멘텀 소진' 논리에 부분적 무게를 실어줌. 3개월 수익률 -23.93%와 고점 대비 -23.93% 하락이라는 구조적 프레임은 여전히 미해소 상태이며, 이는 현 반등이 하락 추세 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한편, 금(GOLD)의 1개월 수익률 +2.55% 대비 BTC +8.5%로 이번 기간에는 비트코인이 아웃퍼폼하고 있어 '금으로의 자금 집중' 논거는 약화됨. T10Y2Y 0.55의 양수 전환과 VIX 23.64의 불안 수준은 매크로 불확실성을 시사하나, liquidity_expansion 레짐과 DXY 100 하회라는 거시 환경이 이를 상쇄하는 국면으로 판단 됨.

Action: BTC 롱 포지션 유지하되 모니터링 강화 권고. 1개월 수익률 +15.13%→+8.5%로의 감속 추세가 지속되어 +5%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중 확대 없이 현 수준을 점진적으로 관리.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속할 경우 강제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T10Y2Y 스프레드 0.55 양수 전환이 경기 둔화 선반영을 시사하며, 연준 금리 결정에서 매파적 발언 시 위험자산 전반에 동반 조정 압력 발생 가능,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BTC 3개월 수익률 -23.93%의 구조적 하락 프레임 미해소 상태에서 1개월 모멘텀이 +15.13%→+8.5%로 감속 중이며, 연환산 변동성 0.41로 높은 수준 유지 시 76,000달러 저항 재돌파 실패 가능성, 이벤트 리스크: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이 상원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 추가 또는 표결 지연 시 입법 현실화 내러티브가 급격히 약화되며 기관 자금 유입 모멘텀 둔화

Macro Picture

Regime: liquidity_expansion

Key Themes: 블랙록 주도 기관 자금 유입(ETF), 달러 인덱스(DXY) 100 하회에 따른 유동성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속 안전 자산(Safe Haven) 내성 확인

Dominant Narrative: 투자자들은 블랙록의 6억 달러 규모 매집과 미 암호화폐 입법 통과 가능성(90%)을 근거로 기관 주도 불장이 지속될 것으로 믿음. 비트코인이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도 빠른 반등을 보이며 '충격 흡수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2026년 반감기 이후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는 시점임.

Reality: DXY가 99.79로 하락하며 달러 약세 기조가 뚜렷해진 점은 호재이나, VIX가 23.64로 다소 높아 단기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T10Y2Y 스프레드가 0.55로 양수 전환된 가운데 76,000달러 돌파 시도 후 73,720.25달러로 약 3% 소폭 조정된 것은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둔 전형적인 관망세로 판단됨.

Hypotheses

Key Question: BTC 현물 ETF 순유입이 주간 기준 양수를 유지하면서 BTC 1개월 수익률이 +10% 이상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ETF 유입 둔화와 함께 모멘텀이 감속하며 76,000달러 저항이 확정되고 있는가?

Tensions

암호화폐 입법 통과 가능성 90%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거나, 시장은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76,000달러 돌파 후 약 3% 소폭 조정된 73,720.25달러에 머물.

0.40

Narrative: 블랙록의 6억 달러 매집과 입법 현실화에 따른 기관 주도 불장 지속 확신

Reality: 씨티(Citi)의 목표가 하향 조정과 금리 결정을 앞둔 전형적인 관망세 및 저항 확인

BTC US10Y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이 충격을 흡수하는 '디지털 금'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나, VIX 지수가 23.64로 상승하며 시장의 실질적 공포 심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0.50

Narrative: 중동 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빠른 반등을 통한 안전 자산(Safe Haven) 내성 증명

Reality: 높은 VIX 수치는 단기 변동성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위험 자산 특유의 변동성 노출 지속

BTC VIX GOLD

달러 인덱스 100 하회로 유동성 개선 기대감이 극대화되었으나, 장단기 금리차의 양수 전환은 경기 체제 변화에 따른 매크로 불확실성을 동시에 시사함.

0.30

Narrative: DXY 99.79 진입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와 유동성 팽창에 기반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

Reality: T10Y2Y 스프레드 0.55 전환 등 매크로 지표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

BTC DXY US10Y

Alternatives

ETH - Ethereum

암호화폐 입법 낙관론과 블랙록 등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모멘텀 둔화 시 순환매 성격의 차순위 수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SLV - iShares Silver Trust

달러 인덱스 100 하회의 유동성 팽창 조건과 VIX 상승에 따른 안전 자산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며, 금 대비 저평가된 매력에 부각될 수 있음.

QQQ - Invesco QQQ Trust

달러 약세 기조와 유동성 확대 레짐에서 대형 기술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을 방어하며 상승 동력을 얻는 경향이 있음.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95%;"></div>	4.75
Tension	<div style="width: 100%;"></div>	5
Hypothesis	<div style="width: 10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80%;"></div>	4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100%;"></div>	5

Feedback: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분석임. 특히 1개월 수익률 +5%라는 명확한 무효화 조건(Invalidation)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멘텀 감속(+15.13%에서 +8.5%로의 44% 둔화)을 정량적으로 추적한 점이 논리적 완결성을 높임. 다만, 가설 B에서 제시된 '금(GOLD) 대비 비트코인 아웃퍼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쇼핑리스트에 상대 수익률 비교를 포함한 점은 훌륭하나, 실제 판정 단계에서 3개월 수익률 -23.93%라는 수치가 어느 시점 기준인지(고점 대비인지 전년비인지) 명확한 시계열 기준을 추가한다면 더 견고한 판정이 될 것임. 또한 RAG 검색 쿼리에 '2026'이라는 특정 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분석 시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과거 데이터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시장의 뷰: 시장은 블랙록의 대규모 매집과 미 암호화폐 입법(시장구조법안 상원 농업위 마크업 통과 등) 현실화를 근거로 기관 주도 불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DXY 100 하회와 liquidity_expansion 레짐 하에서 공급 고정 자산인 비트코인에 구조적 순풍이 불고 있으며, 76,000달러에서의 3% 소폭 조정은 건전한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음. 지정학적 위기에서의 빠른 반등 이력이 '충격 흡수 자산' 내러티브를 강화하며 롱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결론: 기관 주도 유동성 팽창 사이클이 본격화되며 비트코인은 76,000달러 저항을 재돌파하고 80,000달러 이상으로 추세 확장됨. 블랙록의 6억 달러 매집은 단순 포지션이 아닌 구조적 수급 전환의 신호이며, DXY 100 하회와 암호화폐 입법 현실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트리플 순풍' 국면에서 73,720달러 조정은 건전한 되돌림에 불과함. 이전 판정(3/16)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5% 이하 감소'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롱 뷰를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임. [MEDIUM]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판단이나 모멘텀 감소 신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결정적으로, 직전 판정(3/16)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2주 내 +5% 이하로 감소'가 충족되지 않았음. 현재 1개월 수익률은 +8.5%로, 직전 +15.13%에서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5%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롱 뷰 유지가 기본값임. 다만, 1개월 수익률이 +15.13%→+8.5%로 약 44% 감소한 점은 모멘텀 피크아웃의 초기 징후로, 가설 B가 지적하는 '모멘텀 소진' 논리에 부분적 무게를 실어줌. 3개월 수익률 -23.93%와 고점 대비 -23.93% 하락이라는 구조적 프레임은 여전히 미해소 상태이며, 이는 현 반등이 하락 추세 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한편, 금(GOLD)의 1개월 수익률 +2.55% 대비 BTC +8.5%로 이번 기간에는 비트코인이 아웃퍼폼하고 있어 '금으로의 자금 집중' 논거는 약화됨. T10Y2Y 0.55의 양수 전환과 VIX 23.64의 불안 수준은 매크로 불확실성을 시사하나, liquidity_expansion 레짐과 DXY 100 하회라는 거시 환경이 이를 상쇄하는 국면으로 판단됨.

→ BTC 롱 포지션 유지하되 모니터링 강화 권고. 1개월 수익률 +15.13%→+8.5%로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5%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중 확대 없이 현 수준을 점진적으로 관리.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소할 경우 강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대안: ETH: 암호화폐 입법 낙관론과 블랙록 등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 SLV: 달러 인덱스 100 하회의 유동성 팽창 조건과 VIX 상승에 따른 안전 | QQQ: 달러 약세 기조와 유동성 확대 레짐에서 대형 기술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